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5. 17(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5. 17(화) 11:00	담당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
담당과장	조원경 (2150-7610)	담당자	박성귤 사무관(2150-7611)

제목: 신흥지역 연구 강화 방안

□ 5.17(화) 제21차 국무회의에서 「신흥지역 연구 강화 방안」 안건을 보고하고 동 안건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음

○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

※ 별첨 : 「신흥지역 연구 강화 방안」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신흥지역 연구 강화 방안

2011. 5. 17

국무총리실	기획재정부	교육과학기술부
지식경제부	국토해양부	경제인문사회연구회
대외경제정책연구원	수출입은행	한국무역보험공사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	한국무역협회	해외건설협회

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신흥지역 연구 현황 및 평가	2
1. 연구 현황	2
2. 기존 연구 체제에 대한 평가	3
III. 추진 방안	5
① 연구 전담 기구 설치	5
1. 조직개편	5
2. 인력충원 및 인센티브 제공	6
3. 소요 자원	7
4.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	7
5. 온라인상의 One-stop 네트워크 구축	8
② 현장 시장조사 역량 확충	9
③ 신흥지역 연구저변 확대 및 외국 전문가 활용	10
<참고 1> 주요국의 신흥지역 연구체제 현황	12
<참고 2> 각 기관별 신흥시장 연구 현황	13

I. 추진 배경

- ① 최근 신흥지역이 세계경제의 소비/투자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전세계 기업과 국가들의 신흥시장 선점 경쟁*이 치열

* 선진 주요국은 전담 연구 거점 등을 통해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, 지역정보 생산·공유 등에 활용중 (참고)

- 지난 국정 3년간 원전 수출 최초 달성, 중남미/중동/아프리카 지역과의 자원외교 강화, 신흥시장과의 교역 규모 지속 확대* 등 신흥지역 진출 성과를 거두었으나,

* 교역규모(억불) : ① 아시아(中·日 제외) ('06)1,180→('07)1,317→('08)1,563→('10) 1,766
② 중동 ('06)770→('07)873→('10)1,092 ③ 중남미 ('06)303→('07)371→('10)508

- 국내 기업의 보다 성공적인 신흥지역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 및 현안 대응 등을 위한 연구 역량이 긴요

- ② 국내 신흥지역 연구 노력은 강화 추세이나, 심층 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 연구가 절대 부족

- 정보 수집의 어려움, 전문 연구인력의 부족 등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연구가 過小 생산되어 시장실패가 발생
- 우리 기업의 원활한 신흥지역 진출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기초/정책 연구 지원 및 민간 연구 활성화/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시점

- ③ 따라서, 신흥경제권에 대한 효율적 지역연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,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 인프라 확충 추진

- 연구 내용면에서도 정부, 기업 등의 다양한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강화

- ☞ 향후 신흥지역 연구 성과물을 전략적 파트너십 국가 및 ODA 전략국가 선정, FTA/자원외교 등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활용하고, 민간 특히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기여

Ⅱ. 신흥지역 연구 현황 및 평가

1

연구 현황

- 1 [국책연구/공공 기관]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내 '세계지역 연구센터'에서 아시아/중동/중남미 등 신흥지역 연구 수행
 - 그 밖에 KOTRA, 수은, 무역보험공사, 무역협회,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국가별 시장동향·투자환경 등 현장 시장/정보 조사·제공
 - 신흥지역에 대한 대규모 기초연구 등을 위해 '협동연구사업' (경인사연 주관, '11년 예산 186.2억원 중 신흥지역연구에 27.5억 배정) 진행
 - * '10년 사업 추진실적 : 기초연구(21개 과제, 74명 참여, 7억 5천), 정책연구(5개 과제, 5억 5천), 국제학술대회(3회), 세계지역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등
 - *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학계·KIEP·일부 부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연구과제 선정/평가 기능을 담당, 신흥지역 연구는 KIEP 등에 위탁 운영
- 2 [대학 연구소] 「인문한국지원 사업」(Humanities Korea, 교과부/한국연구재단)을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 구축
 - 연구 분야는 주로 언어, 문학, 역사, 정치 등 인문학 중심이며, 경제 분야 연구 결과물은 매우 부족
 - *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소(10개, '11년 예산 :약 77억원)를 제외하고, 대학내 신흥지역 연구에 대한 재정적·인적 지원이 불충분
- 3 [민간 연구소] 삼성, LG, 포스코, SK 등 대기업 연구소에서 중국·인도를 중심으로 주로 관련 산업(포스코경영연구:철강)이나 시장동향·기업현안, 거시경제·산업동향 등을 연구
 - 다만, 연구 결과물의 상당수가 비공개 성격의 내부용으로 중소기업 및 일반인의 정보 접근은 제한적인 상황

◇ 신흥국이 소비시장, 자원협력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신흥 지역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직/예산 등이 일부 확대

* (KIEP) 세계지역연구센터內 신흥국 연구인력확충 ('05년 약40명→'11년 48명) 등

** (경사연) 세계지역연구(중국제외) '10년 20억원 신설, '11년 27.5억원 등

◇ 그러나, 중국을 제외한 신흥지역 전문 인력과 기초·심층연구가 부족하고, 분산된 연구의 집적기능도 미약

1 [방향] 신흥지역연구의 기본방향이 미정립된 상태에서 선제적 연구보다 현안 발생시 수동적 대응이 중심

○ 선진국의 '식민지 연구'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연구를 답습함으로써 한국 실정에 적합한 연구방향에 대한 고민 부족

2 [조직] 신흥국 관련 연구의 외형적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별 담당 조직이 미비하여 심층/실용적 연구가 부족

○ 전담 조직운영보다는 기존 조직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, 기관내 연구 우선순위가 낮거나, 자원과 인력 투입이 제한적*

* 이로 인해 경제일반 및 현안 중심의 연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, 수요가 크고 연구의 확대 재생산에 필요한 전문 심층 분석연구가 부족

○ 분야별 전문연구와 동시에 융합연구도 필요하나, 각 산업별 전문 분야* 연구 및 기관별 네트워킹이 미흡

* ① 산업·자원(산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 등), ② 국토·해양(국토연구원), ③ 개발협력(KDI 국제대학원 등), ④ 농업(농촌경제연구원 등)

○ KOTRA, 수은/무보, 무역협회 등의 해외사무소 증설에도 불구하고, BRICs를 이어 새롭게 부각되는 주요 신흥 국가의 새로운 수요*에 부응하는 현장정보 공급은 여전히 부족

* 기업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전략, 신흥국 산업 및 통상정책 변경, 신흥국별 긴급사안 발생 시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립 등

③ **[인력]**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**분야별 전문 인력이 불충분***
하고, **신규 인력 양성**에 대한 지원도 미비

* 최근 중동·아프리카 등에 대한 연구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, KIEP의 경우 중동 18개국과 아프리카 48개국 담당 연구자가 각각 3명씩에 불과

○ **신흥 지역 연구의 난이도***에 비해 연구 인력에 대한 **인센티브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여 연구 인력 탈퇴 현상** 발생

* 일상적인 동향파악과 현지실태 파악 등 현장 중심 지역연구의 특성상 우수 연구 인력의 지역연구 선호도가 낮은 실정

○ **지역 전문가 육성** 및 국내 연구기관/대학원 등의 **외국 석·박사급 인력**에 대한 **활용 및 사후 관리가 미흡**

④ **[예산]** 「신흥지역 협동연구」, 「대학 부설 연구소」 지원 등 **대규모 예산투입 사업**에 대한 **기획·조정 능력** 제고 필요

○ **연구과제 선정, 평가, 피드백 단계에서 연구 수요처인 정부기관, 기업, 경제단체 등의 참여가 미흡**

* 자문위원회 등에 지경부, 농식품부 등 유관 경제부처나 경제단체의 참여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, 예산반영 등이 미흡

○ **종합적/체계적 연구 기획 및 수행에 필요한 연구 조직/인력**에 대한 지원 부족

* 경인사연 주관의 신흥지역 협동연구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, 이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박사급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가중

⑤ **[활용]** 각 연구기관간 **네트워크** 및 **연구 결과물**에 대한 **집적·공유**가 미흡하고, **중소기업/정부** 등에 대한 **정보제공 채널**이 미흡

○ 각 기관별로 온라인상에 정보 제공을 위한 **정보포털/홈페이지**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, **관리 및 상호 연계***가 부족

* KIEP에서 중국전문가포럼(CSF), 신흥개도국지식정보포털(EMERiCs), 중앙아시아포럼(CAF) 등을 운영 중이나 콘텐츠 중복 및 타 기관과의 연계 미흡

III. 신흥지역 연구 강화 방안

1 신흥지역 연구 전담 기구 설치

1. 조직 개편

- ① 現 KIEP내 “세계지역연구센터”를 개편하여 신흥 지역 연구만을 전담하는 “신흥지역 연구센터” 신설

- 신흥지역 연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 보장 (KIEP내 연구센터 형태로 운영)

* KIEP 내 선진지역 연구/기타분야 등과 유기적인 연계/융합 체계 구축 (KIEP가 세계지역 연구 본산 기능은 지속 수행)

신흥지역연구센터의 주요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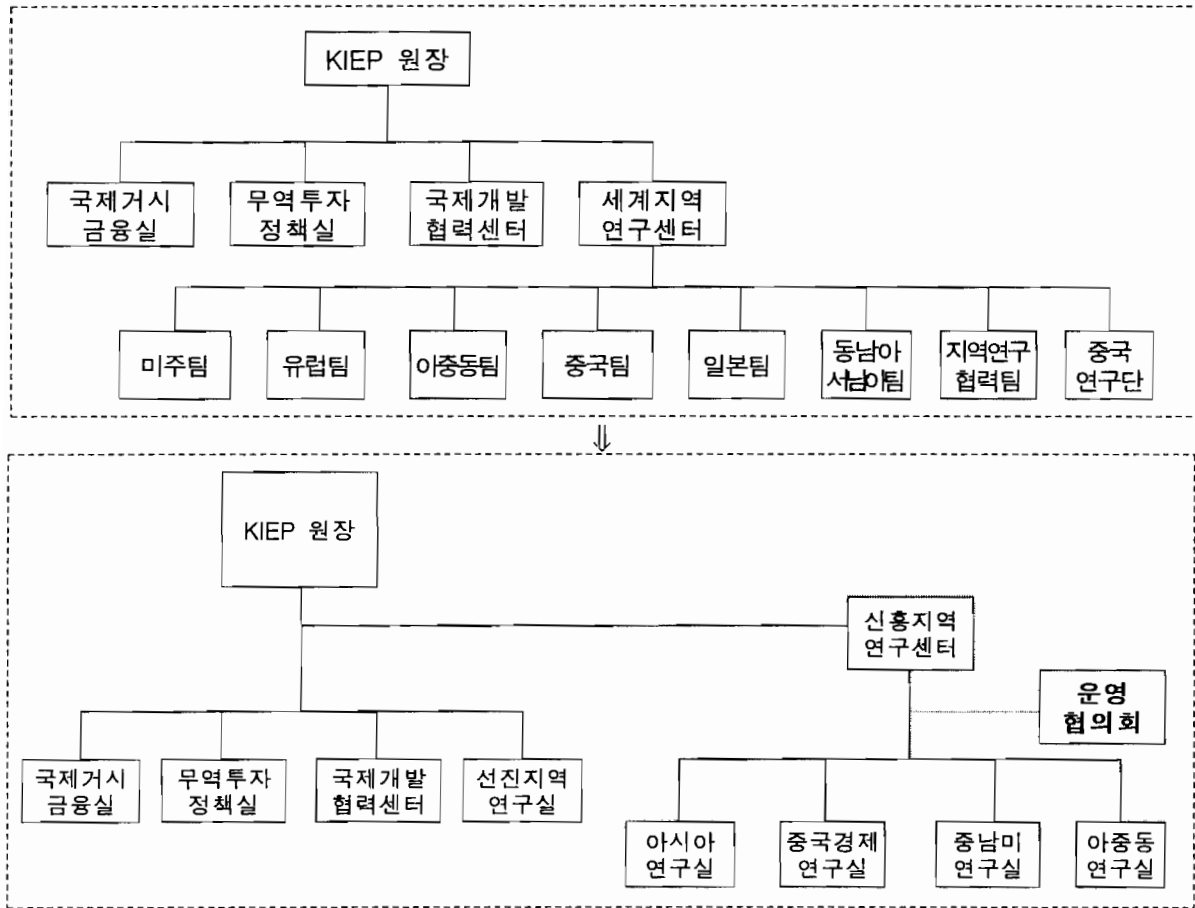
- ① 신흥지역에 대한 사전적/ 선제적 연구 기획
- ② 국내 연구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적 신흥지역 연구
- ③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적 연구 과제 (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등)
- ④ 각 기관의 연구, 현장정보, 국제기구 정보에 대한 집적 및 공유 채널 구축

- ② 「신흥지역연구센터」와 연구 수요자를 유기적으로 연계 하고, 일상적 운영을 자율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체적 의사결정 방식의 「운영 협의회」*를 설치

* (위원장) KIEP 원장, (위원) 신흥지역연구센터장, 경제부처, 외교부 등 관계부처, 경제단체, 학계(인문계열 등 포함), 관련 유관 기관/연구 단체장 등

- ① 신흥지역 연구 수요조사, ② 연도별 및 중장기 연구 기획, ③ 연간 사업성과 심의 및 평가 등 실시

< 신흥지역연구센터 설립 방안 >



2. 인력 충원 및 인센티브 제공

① 초기에는 60~70명 수준으로 설립하고, 단계적으로 확대

- 현행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내 신흥지역 연구인력 48명*을 흡수하고, 나머지 인력(12~22명)은 신규 채용

* 現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흥지역 연구인력: 중국·성별연구(16), 동서남아(9), 아중동(6), 중남미(3), 러시아·중앙아(6), 지역연구협력팀(8)

- 신흥지역 관련 연구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구인력 T/O를 확충*하여 연구자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, 현지사정에 밝은 현지인/외국인 연구진을 지역별로 별도 채용

* 아중동팀 : 6 → 10명, 중남미팀 : 3 → 10명 등

- ② 각 부처의 연구용역에서 신흥지역 연구 분야에 대한 위탁
용역 비중을 단계적으로 現 수준의 2배 이상으로 확대*
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및 연구원 급여수준 개선 유도

* 「운영 협의회」 등에서 발굴된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부 연구 용역
위탁 규모 확대 및 의뢰 추진 ('10년 위탁 규모 : 약 17억원)

* 정부부처 정책연구개발비 위탁 : ('10) 9.7%(17/175억)→ ('13년) 20%대 수준

- 사업비 형태의 각종 연구사업 등을 가급적 일반용역
형태로 전환*하여 적극적인 연구 유인 제공

* 현행 평가시스템은 일반용역 수주실적만을 연구원 급여/연봉 수준에 반영

3. 소요 자원

- 기존 국책 연구원의 재정지원 사례*를 감안, 연간 100
억원 수준 소요 (인건비 35억원, 사업비 65억원 등)

* KIEP(161명 / 250억), KDI(406명 / 604억), KIET(152명 / 159억) 등

- 現 KIEP 출연예산 중 신흥지역 연구 예산은 약 70억원
(인건비 25억, 사업비 45억 원)으로 30억 부족

- 추가 소요되는 30억원 중 사업비(20억원)는 경인사연 협동
연구 예산*(중국 제외)의 KIEP 이관으로 충당하고, 신규 채용을
위한 인건비(약 10억원)만 2012년 예산에 추가 반영

* '11년 현재, 아프리카(11.5억)는 경인사연 관리, 인도/아세안/중남미/
중동(16억원)은 KIEP에 위탁 운영중

4.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강화

- ① KIEP 「신흥지역연구센터」의 인력증원 최소화 및 효율적인
연구를 위해 「신흥지역 연구기관 협의회」를 신설하여 주요
분야별 연구거점*과의 협업을 강화 (네트워크 허브 역할 수행)

* (산업) KIET 국제산업협력실, (에너지) 에너지경제연 에너지국제협력본부,
(국토) 국토연 글로벌개발협력센터, (개발) KDI 국제개발협력센터, (과학기술)
과학기술정책연 글로벌정책센터, (농업) 농촌경제연 글로벌협력연구본부

- 각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신흥지역 연구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,

* '11년 현재, 정부출연연구기관(23개)의 신흥지역연구 예산은 123억 수준

-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'연구소간 시범 공동 연구'를 우선 실시하여 연구교류의 모범사례를 조속히 마련

- ② KIEP 「신흥지역연구센터」가 주관이 되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채널을 확대하고, 해외 전문가 대상 교환 방문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

5. 온라인상의 One-stop 네트워크 구축

- ① KIEP 주관으로 「신흥지역정보 종합 지식포탈」을 구축

* 기존 '신흥개도국지식정보포탈(EMERICs)'과 '중앙아시아포럼(CAF)', '중국전문가포럼(CSF)',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(CPRG) 사이트를 종합

- 지역연구 관련 유관기관 콘텐츠*를 신흥지역별, 국가별로 분류하여 One-stop 정보검색이 가능토록 정보 제공

* 신흥 지역/국가별 산업 관련 기초 통계 DB 검색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 (KIET 해외산업정보)하여 종합포탈과 연계

- 국내외 민간/대학 연구소, 개도국 대상 사업수행기관 (KOICA 등)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*을 연내 추진하여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

* 국내 민간 연구소와의 정보 공유 MOU 체결, 국제기구/해외 우수 연구소의 국별 연구, 국가별 현안 정보 등에 대한 공유 시스템 구축

- ② 홈페이지상의 영문/현지어 보고서 확대로 우리 지역 협력 모델의 對세계 전파 및 해외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

① KOTRA · 수은 · 무보(K-sure) · 무역협회 등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유용한 현장 정보 조사 · 생산에 주력

- 현장 조사 기관 상호간 MOU 등 업무 협약 체결 및 협의회 구성*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업무 중복 방지

* 신흥지역 비즈니스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KOTRA, 수은, K-sure, 무역협회, 해건협 등을 구성원으로 「신흥지역 비즈니스 정보 조사 협의회」 운영

② KOTRA는 무역 · 통상 관련 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감안, 우리 기업 관련 신흥지역 정보수집 · 제공을 전반적으로 총괄

- KOTRA의 신흥시장별 해외조직망*(KBC, 코리아 비즈니스센터)을 지속 증설**하여 현장중심의 비즈니스 정보조사/연구 확대

* 아시아 25(중국 제외), 중동 13, 중남미 11, 아프리카 4개 등 53개 운영

** '11년 중 신흥지역에 5개의 KBC를 신설('12년 8개 신설)하고, 향후 현장 정보가 취약한 중남미 · 아프리카 지역 등의 KBC 확대 운영

- 「연구기관 - KOTRA - 중소기업」간 신흥지역 연구조직화를 위한 지역별 연구 모임체* (Tri-Community) 신설 · 운영

* 공공/연구 기관의 연구성과와 비즈니스 현장정보를 상호 연계, 시너지효과 제고

③ 수은 · 무보 · 무역협회 등은 지역별 MDB, 국제기구, 수출신용기관(ECA), FTA 체결국 등과의 협업체널/네트워크를 확대 · 보강

- 수은의 EDCF 인력보강, 수은 · 무보의 MDB 파견 확대* 등으로 협조유자, MDB 공동컨설팅** 활성화

* (수은) : ('10) MDB 3, 해외사무소 · 주재원 13 → ('11) MDB 1, 주재원 3 추가
(무보) : ('10) MDB -, 해외사무소 · 주재원 13 → ('11) MDB 1, 주재원 2 추가

** 기획재정부(수은) - MDB(ADB, IDB, AfDB 등) - 수원국간 삼각 협력 기반 구축

- 수은·무보 등의 해외사무소를 활용*하여 MDB 지역 사무소/재외공관 등과 연계하고, 신흥국 조달시장, 원전·플랜트 등 산업현황, 법률·세제 등 투자환경 조사 강화

* 신흥지역 해외 사무소 현황 : 수은 10개 , 무역보험공사 7개

- 국가위험 평가/산업분석에 관한 연구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수은·무보 등과 해외 ECA간 연구포럼* 신설

* ('10) - → ('11) 연 2회 이상 → ('12) 연 4회 이상으로 점진적 확대

- 무역협회는 FTA 체결 대상국에 대한 투자·통상 지역정보, 해외건설협회는 플랜트 등 해외건설 정보 생산에 특화

④ 신흥시장 지역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 사업 강화

- 학술연구와 비즈니스를 연계하기 위해 「KOTRA 아카데미」 내에 “신흥지역 연구과정”을 확대 운영*

* ('10) 8개 과정 10회 → ('11) 17개 과정 20회 → ('12) 25개 과정 30회

- 신흥지역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무역협회 내 “해외인턴십 장기과정*” 확대 운영

* ('11) 150명(상·하반기 각 1회) → ('12) 200명 → ('13) 400명

3 신흥지역 연구 저변 확대 및 외국 전문가 활용

① 신흥지역의 장기적·안정적 기초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대학 연구소 사업의 신흥지역 분야 비중 및 지원 규모 확대

* 대학부설 인문학 연구소 육성을 위한 HK(Humanities Korea) 연구소 중 신흥지역 관련 연구소 10개(77억)를 '15년까지 2배로 확대(20개)

* ('10) 77억 → ('12년) 100억 → ('13) 120억 → ('14) 135억 → ('15) 150억

- 지역 연구소 실태조사/연구성과 평가를 내실화하고, 중점 대상 지정 및 연구비 배분 등에 반영

② **현지 연구소·한국학 중핵대학* 등에 국내 연구자가 체류하여 심층연구 및 현지 네트워크 형성 촉진**

- * 한국학이 개설된 해외대학을 선정하여 한국학 메카로 육성('10년, 총18개)
- * 신흥지역 중핵대학 지원확대 : ('10) 1→ ('12년) 3→ ('13) 4→ ('14) 6→ ('15) 8

○ **신흥지역 현지 전문가(교수, 공무원, 기업인 등)의 국내 대학 지역연구소 교환방문(Visiting Expert) 프로그램 신설***

- * '12년 20여명(10억원) 초빙을 시작으로 '15년까지 2배 이상 확대 운영

③ **개인연구자의 신흥지역 연구 촉진을 위하여 인문사회 기초연구* 사업에서 “신흥지역 연구 분야”를 신설**

- * 지원대상 : 국내·외 Post-doc, 학술연구교수, 신진/일반연구자지원 ('11년 369.1억)

○ **신흥지역 연구 분야에 전체 예산의 5%* 별도 운영**

- * '12년 20억원, 40개 과제 내외

④ **국내 청년인력의 신흥지역에 대한 지식·경험 축적을 위해 해외 파견 사업(KOICA 해외봉사단, 연 1,000명) 등을 확대 시행**

○ **파견지역에 대한 별도 연구과제 수행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책 등을 마련**

⑤ **신흥지역 우수 인력 확보와 외국인 유학생 활용 사업*을 확대하고, 외국인 유학생 DB 구축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**

- * 정부초청 장학생 130개국 3,282명, KDI 814명 ('11. 3월 현재 누계)

○ **BRICs 등 주요 신흥국 출신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을 확대**

○ **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(연 400명 규모), 교환교수/연구원 등의 학위논문·프로젝트 수행시 자국에 대한 연구* 유도**

- * 신흥지역 출신 외국인 유학생 논문 등을 통해 자국에 대한 경제·사회 분야 실태조사/분석 등을 의뢰하고, 연구논문을 「신흥지역 종합 지식정보포털」과 연계

◇ 주요 선진국은 신흥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담 연구거점 설립, 전략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소 등을 통해 국가전략 수립, 지역정보 생산·공유 등에 활용

① (미국) 대학 부설, 민간 연구소 중 신흥 지역에 특화된 연구소가 다수 존재*하며, 브루킹스, 피터슨 연구소 등 주요 싱크탱크에서 신흥지역에 대한 다수 연구 수행

* 존스홉킨스 대학 부설 동아시아연구소, 하버드 대학 부설 중남미 연구센터, 중동연구소(MEI, Middle East Institute) 등

② (일본) 신흥지역에 대한 기초·종합 연구를 위해 '아시아 경제연구소'를 설립·운영 중

○ 연구부서는 지역연구센터(32명), 개발연구센터(29명), 新영역 연구센터(22명)로 구분되며 해외조사원 운영(22명) ('10년말)

* '58년 경제산업성 소관의 재단법인으로 발족, '98년 일본무역진흥회(JETRO)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통합 (연구진: 150여명)

③ (중국) 사회과학원 산하에 지역별 전담연구소와 외교부 직속의 '국제문제연구소*' 內 지역별 연구부 등 운영

* 미국, 유럽, 아태, 개발도상국 등 7개 연구부를 운영 중 (약 100명)

○ 사회과학원은 아시아 지역 3개(일본, 대만, 아태), 여타 지역 5개(미국, 유럽, 중동·아프리카, 중남미, 중앙아) 등 지역연구소 운영

* 아태연구소('88년)는 동북아, 동남아, 남아시아, 태평양국가의 정치/경제/외교/사회, 지역통합 등에 대한 기초·위탁연구 실시(5실, 6센터, 2학회/65명)

* 중동아프리카연구소('61년)는 중동·아프리카 73개 국가의 정치·경제발전과 국제관계, 사회·문화·민족·종교 등을 종합 연구(4실, 2센터, 62명)